<h1>나 혼자만 레벨업-9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f310f91e173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9화</p>  
<p>\*\*\*</p>  
<p>"머리를 심하게 다친 거 아냐?"</p>  
<p>여동생이 멀찍이 서서 묻는 말에 진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.</p>  
<p>"아니."</p>  
<p>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우의 여동생, 성진아의 눈빛은 여전히 곱지 않았다.</p>  
<p>"정말 괜찮은 거지?"</p>  
<p>"그렇다니까."</p>  
<p>우두커니 진우의 상태를 훑어보던 진아는 이내 씩씩거리며 다가왔다.</p>  
<p>그러곤 평소처럼 가드 자세를 취한 진우를 퍽퍽 야무지게 때리기 시작했다.</p>  
<p>"그만 좀 다치라고! 얼마나 걱정했는데!"</p>  
<p>"...미안하다."</p>  
<p>"남들은 다 괜찮은데 왜 오빠만 늘 다치는 거야!"</p>  
<p>"...미안."</p>  
<p>진우를 때리던 진아의 손에서 힘이 점점 빠졌다.</p>  
<p>곧 진아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.</p>  
<p>진우는 흐느끼는 동생의 등을 천천히 다독여 주었다. 왠지 콧잔등이 시큰해졌다.</p>  
<p>'이런 녀석을 두고 죽으려 했었다니.'</p>  
<p>살아 돌아와 다행이었다.</p>  
<p>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.</p>  
<p>마치 끔찍한 악몽을 꾼 것 같은 기분.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살짝 허공의 메시지로 향했다.</p>  
<p>[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.]</p>  
<p>'아직도 그 꿈속에서 완전히 헤어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...'</p>  
<p>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였다.</p>  
<p>그래도 뭐 어떠하랴.</p>  
<p>중요한 건 이렇게 살아서 다시 가족들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아닌가?</p>  
<p>"훌쩍."</p>  
<p>다행히 씩씩한 여동생의 눈물은 금방 그쳤다.</p>  
<p>그러나 잔소리는 그 뒤로도 1시간이나 더 계속됐다.</p>  
<p>"알겠어? 한 번만 더 다치면 내가 공부 때려치우고 일하면서 오빠 헌터 일 못 하게 할 거라고."</p>  
<p>고운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예리한 진아의 눈빛은, 진우와 그것과 몹시 닮아 있었다.</p>  
<p>"알았어, 알았어."</p>  
<p>진우는 내내 질렸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거렸다.</p>  
<p>그렇게 몇 번이고 다짐을 받고서야 속이 풀렸는지 진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.</p>  
<p>"어디 가게?"</p>  
<p>"학교. 오빠 어떤가 보러 오려고 잠깐 외출만 허락받은 거야. 다시 가야 돼.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"하긴 수능이 내년이지."</p>  
<p>과외 한번 시켜 준 적도, 학원 한번 보내 준 적도 없지만 항상 전교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대견한 동생이었다.</p>  
<p>진아의 꿈은 의사.</p>  
<p>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던 녀석이, 어머니가 아프고 나서는 의사가 되겠다며 책상 앞을 떠나지 않았다.</p>  
<p>진우는 동생의 꿈을 꼭 이뤄 주고 싶었다.</p>  
<p>그런데 잠깐... 게임이라?</p>  
<p>순간 진우의 눈이 번득였다.</p>  
<p>"나 갈게."</p>  
<p>병실을 나가려는 진아를 진우가 급히 불러 세웠다.</p>  
<p>"진아야."</p>  
<p>"왜?"</p>  
<p>"게임 같은 거 할 때 말이야..."</p>  
<p>진아가 피식 웃었다.</p>  
<p>"나 요새 게임 안 해. 고3이 며칠 남았다고."</p>  
<p>"알아. 알긴 아는데 묻고 싶은 게 있어서."</p>  
<p>"그래? 뭐가 궁금해? 오빠 요즘 게임해?"</p>  
<p>과거의 전문 분야여서 그런지 진아가 강한 관심을 보였다.</p>  
<p>진우는 아직도 허공에 떠 있는 글자들을 힐끔 쳐다보고는 물었다.</p>  
<p>"게임에서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을 때, 그 메시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"</p>  
<p>"일단 메시지 함을 열어야지."</p>  
<p>"메시지 함을 '연다'고?"</p>  
<p>띠링!</p>  
<p>진우가 '연다'는 말을 꺼내자마자 전자음과 함께 감춰져 있던 메시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.</p>  
<p>[두 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.]</p>  
<p>[플레이어]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.(미확인)</p>  
<p>[일일 퀘스트: 강자가 되기 위한 준비]가 도착하였습니다. (미확인)</p>  
<p>진우가 희색을 띠었다.</p>  
<p>'됐다!'</p>  
<p>갑자기 밝아지는 오빠의 표정을 보고 문득 불안감을 느낀 진아가 물었다.</p>  
<p>"뭐야? 무슨 게임인데? 내가 좀 도와줘?"</p>  
<p>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"아니. 혼자 해 보게."</p>  
<p>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말해 주면 동생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?</p>  
<p>'동생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는 싫으니까.'</p>  
<p>진우는 하고 싶은 말들을 속으로 삼켰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배웅하는 척 동생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확인한 진우는 빠르게 병실로 돌아왔다.</p>  
<p>'같은 실수를 반복할 순 없지.'</p>  
<p>딸깍.</p>  
<p>목격자 방지를 위해 문까지 걸어 잠갔다.</p>  
<p>만반의 준비를 끝낸 진우는 침대에 걸터앉고서, 눈앞에 떠 있는 메시지들의 제목을 읽어 내려갔다.</p>  
<p>[플레이어]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. (미확인)</p>  
<p>[일일 퀘스트: 강자가 되기 위한 준비]가 도착하였습니다. (미확인)</p>  
<p>첫 번째 메시지의 제목은 어디서 들어 본 것 같은 기억이 있었다.</p>  
<p>'어디서 들었지? 분명 낯이 익은데.'</p>  
<p>우선은 첫 번째 메시지부터.</p>  
<p>[플레이어]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. (미확인)</p>  
<p>'확인.'</p>  
<p>띠링.</p>  
<p>[본 시스템은 '플레이어'의 성장을 지원합니다.]</p>  
<p>[본 시스템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.]</p>  
<p>[보상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.]</p>  
<p>"아아."</p>  
<p>뒤늦게 기억이 났다.</p>  
<p>기억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이었다.</p>  
<p>'그때도 플레이어니 뭐니 그런 소릴 했었지.'</p>  
<p>하지만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되지 않았다.</p>  
<p>시스템, 성장, 페널티, 보상.</p>  
<p>의미가 불명확한 단어들의 연속이었다.</p>  
<p>'대체 뭘 어떻게 성장시키고 뭘 어떻게 보상해 준다는 거야?'</p>  
<p>게임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나열되어 있으니 이해가 어려울 수밖에.</p>  
<p>알아듣기 힘든 말들은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, 차분히 다음 메시지를 열었다.</p>  
<p>[일일 퀘스트: 강자가 되기 위한 준비]가 도착하였습니다. (미확인)</p>  
<p>꼴깍.</p>  
<p>진우는 의미심장한 메시지 제목에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다.</p>  
<p>가슴이 뛰기 시작했다.</p>  
<p>'확인.'</p>  
<p>띠링.</p>  
<p>[일일 퀘스트: 강자가 되기 위한 준비]</p>  
<p>팔굽혀 펴기 100회 : 미완료 (0/100)</p>  
<p>윗몸 일으키기 100회 : 미완료 (0/100)</p>  
<p>스쿼트 100회 : 미완료 (0/100)</p>  
<p>달리기 10km : 미완료 (0/10)</p>  
<p>※주의: 일일 퀘스트 미완료 시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.</p>  
<p>메시지를 확인한 진우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실소가 흘러나왔다.</p>  
<p>"하하... 이거 참."</p>  
<p>맥이 빠졌다고 해야 하나.</p>  
<p>일일 퀘스트, 그것도 '강자가 되기 위한 준비'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고 날아온 메시지의 전문이 체력 단련용 운동법이라니.</p>  
<p>확실히 퀘스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몸이 조금은 튼튼해질지도 모르겠다.</p>  
<p>그게 시스템이 말하는 성장과 보상이란 걸까?</p>  
<p>'그러고 보니...'</p>  
<p>예전에 어떤 책에서 '내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'는 글귀를 읽었던 기억이 났다.</p>  
<p>'결국 보고 싶은 것이 보이는 거라지.'</p>  
<p>얼마나 강해지고 싶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이 눈앞에 나타나게 됐는지.</p>  
<p>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했다.</p>  
<p>"이딴 걸로 강해질 수 있었으면 누가 그 고생을 했겠냐고...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.</p>  
<p>여러 가지 의문들의 답을 망상일지도 모르는 메시지에서 찾으려 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.</p>  
<p>'에라, 모르겠다.'</p>  
<p>진우는 침대 위에 대자로 드러누웠다.</p>  
<p>그리고 말없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.</p>  
<p>"..."</p>  
<p>하는 일도 없는데 시간은 잘도 흘러갔다.</p>  
<p>그렇게 병실 안을 메운 정적의 무게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할 무렵.</p>  
<p>진우가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.</p>  
<p>'그래도...'</p>  
<p>그래도 만에 하나 무언가 바뀌는 것이 있다면?</p>  
<p>어쩌면 하는 기대감과 설마 하는 의구심이 반반 섞인 채로 '한번 해 볼까'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.</p>  
<p>'일단 손해 볼 건 없으니까.'</p>  
<p>그냥 가볍게 몸 한번 푼다고 생각하면 못할 이유도 없잖아?</p>  
<p>어렵게 결정을 내렸다.</p>  
<p>해 보자고.</p>  
<p>진우는 침대에서 내려와 짧은 스트레칭을 마친 뒤, 침대 모서리를 짚고서 천천히 팔굽혀 펴기를 시작했다.</p>  
<p>"1, 2, 3..."</p>  
<p>1에서 시작된 숫자가 가파르게 위를 향해 갔다.</p>  
<p>"...97, 98, 99, 100."</p>  
<p>시작한 김에 100개를 다 채워 봤지만 기대와 달리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.</p>  
<p>팔이 조금 저리다는 것 빼고는.</p>  
<p>"내가 뭘 한 거지..."</p>  
<p>진우는 피식 웃으며 바로 섰다.</p>  
<p>[플레이어]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. (확인 완료)</p>  
<p>[일일 퀘스트: 강자가 되기 위한 준비]가 도착하였습니다. (확인 완료)</p>  
<p>미확인이라던 메시지가 확인 완료로 바뀌어 있었다.</p>  
<p>더 이상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다는 글자도 뜨지 않았고, 이 이상 망상과 장단을 맞춰 주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다.</p>  
<p>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다.</p>  
<p>진우는 미련 없이 메시지창을 닫았다.</p>  
<p>"하암-."</p>  
<p>진우는 늘어지게 하품하며 다시 침대 위로 올라갔다.</p>  
<p>오랜만에 몸을 움직여서 그런지 슬슬 졸려오기 시작했다.</p>  
<p>창밖의 하늘은 어느새 노을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다.</p>  
<p>'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?'</p>  
<p>아까 감시과 직원들이 말하길, 이번 병원비는 협회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했었다.</p>  
<p>기왕 입원한 김에 이것저것 정밀검사도 좀 받고, 건강하다는 사인이 떨어진 뒤 퇴원해도 늦지 않으리라.</p>  
<p>진우는 그리 생각하며 자리에 누웠다.</p>  
<p>'어차피 환각이니 환청이니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겠지...'</p>  
<p>눈꺼풀이 스르르 감겨 왔다.</p>  
<p>진우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.</p>  
<p>째깍, 째깍.</p>  
<p>진우가 자는 동안에도 벽면의 시계는 부지런히 바늘을 움직였다.</p>  
<p>돌고, 돌고, 돌던 바늘은 어느덧 오후 11시 59분 57초를 가리켰다.</p>  
<p>틱, 틱, 틱.</p>  
<p>58초, 59초, 60초.</p>  
<p>시곗바늘은 정확히 12시 0분 0초에 정지했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일일 퀘스트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. 정해진 시간 동안 '페널티 존'으로 이동합니다.]</p>  
<p>\*\*\*</p>  
<p>쿠구구구구구궁-!</p>  
<p>진우는 온몸을 뒤흔드는 격렬한 진동에 눈을 떴다.</p>  
<p>"지, 지진?"</p>  
<p>벌떡 일어난 진우가 침대 끝을 붙잡았다.</p>  
<p>지진이 어찌나 심한지 균형을 잡기가 힘들었다.</p>  
<p>쿠구구구궁-</p>  
<p>흔들림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다.</p>  
<p>그때.</p>  
<p>퍼석-</p>  
<p>떨어질라 꽉 쥐고 있었던 침대의 철봉이 부러졌다.</p>  
<p>아니, 부러진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.</p>  
<p>진우가 급히 손안을 확인했다.</p>  
<p>철봉은 어디 가고 모래만이 남아 있었다.</p>  
<p>'모래?'</p>  
<p>퍼석-</p>  
<p>다른 쪽의 철봉도 모래로 변했다.</p>  
<p>지진은 한층 더 심해졌다.</p>  
<p>쿠구구구구구궁-</p>  
<p>"으악!"</p>  
<p>결국 침대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졌다.</p>  
<p>병실 안에서 이리저리 튕기며 비명을 질러 댔다.</p>  
<p>그러는 동안에도 병실 안의 사물들은 하나둘 모래로 변해 갔다.</p>  
<p>"으아아아아아-!"</p>  
<p>털썩.</p>  
<p>내동댕이쳐진 진우가 어디엔가 파묻혔다.</p>  
<p>손끝에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.</p>  
<p>입자가 고운 모래였다.</p>  
<p>지진은 어느새 멈춰 있었다.</p>  
<p>"퉤, 퉤!"</p>  
<p>진우는 입속에 들어온 모래를 내뱉으며 급히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"...?"</p>  
<p>끝도 보이지 않는 모래의 대지가 펼쳐져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.</p>  
<p>옷 틈새로 들어왔던 모래가 스르륵 아래로 빠져나갔다.</p>  
<p>진우는 가슴에 묻은 모래 먼지를 털며 주변을 훑어보았다.</p>  
<p>온 시야가 정말로 모래뿐이었다.</p>  
<p>"사막...?"</p>  
<p>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.</p>  
<p>분명 자신은 방금 전까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병원에서 자고 있었다.</p>  
<p>그런데 눈을 뜨니 광활한 사막 위라?</p>  
<p>진우는 모래를 한 움큼 쥐어 아래로 흘려 보았다.</p>  
<p>모래는 아래를 향해 일직선으로 떨어졌다.</p>  
<p>'바람이 전혀 없다.'</p>  
<p>바람만 없는 것이 아니다.</p>  
<p>고개를 들어 보니 하늘에는 해도, 달도, 별도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새까만 먹물로 채워 놓은 것 같은 텅 빈 하늘.</p>  
<p>하지만 어째서인지 주위를 보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.</p>  
<p>"대체 여긴 어디야?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